

한국BASF, 독거노인과 릴레이 봉사활동

한국BASF는 5월12일 은평구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한강 나들이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인 5월과 호국보훈의 달인 6월 2달간 릴레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



5월 12·24일, 6월 2·9·16·23일 6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매회 한국 BASF 임직원 20~30여명과 은평구 자원봉사자 20여명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봉사활동은 혼자 힘으로 나들이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강 나들이, 임진각 방문, 영화 보기, 쇼핑하기 등 외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국BASF 김종광 회장은 “한국 BASF의 사회봉사활동은 BASF의 미래 비전 BASF2015의 4대 전략적 경영 방침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환으

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임직원들의 사회봉사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BASF는 매년 지속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울산, 여수, 군산 등 공장 인근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5/12>